

머릿 4월

Contents

영화 <산물> 감상 후기
 한국DPI 이동기흥재단
 지역단체 <4.19국민문화제>
 서울시 바다장애인가족 288명대회 서울시청 정기 농성 여차
 포천시에서 올려버린 420장애인차별철폐 총투쟁 정의대회
 김은경의 특별LP이야기
 성매매 특별법 외에 노란 대머리
 이희사의 기승역입니다.
 이다의 저널
 장애인화자라치
 이다의 시
 회의가일
 광고

영화 <스물>

허성현

일에 파묻혀 경직돼 가던 하루하루.
봄이 와서 봄꽃이 활짝 피어도 봄을 느끼지 못하고 경직돼 지나가던 중 집단자립생활
기술훈련으로 영화<스물>을 보게 됐다. 영화는 제목 그대로 스물, 꽃다운 나이의 울렁
거림을 잘 담아내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장르가 코미디라서 그런지 부담 없이 웃으면서 볼 수 있어서 그동안 일로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날릴 정도로 기분이 확 풀어졌다.



내용은 인기만 많은 놈 치호와 생활
력만 강한 놈 동우,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놈 경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잉여의 삶을 지향하는 인기절정의
백수,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실 틈 없이 준비하는 생활력 강한
재수생, 대기업 입사가 목표인 최강
스펙의 엄청난 아이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새내기 대학생이 티격태
격……. 좌충우돌……. 스토리를 풀어
냈다.

간간히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장면
이 연출돼서 말 그대로 기분 전환하
기에는 딱~~~이야기였다.

영화<스물>은 생각만 해도 가슴
울렁대는 나이의 순수한 놈들의 동감
내기 스토리를 코믹하게 풀어냈다.

웃으면서 보고난 후 그 나이의 나를
떠올려보게 하는 영화였다. 무엇이던지 하면 다~ 통하는 순수한 그 시절에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런 물음표 하나쯤은 있어야 할 거 같다.

스물을 지나 나의 20대까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 그 시절의 나는 아픔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지 싶다.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기는 했지만 늘 불안 했다.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나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그린 시기이기도 했다. 실습거부 사건을 겪으면서 장애우권익연구소를 만났고, 거기서 장애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났고, 그 활동가들 때문에 장애운동을 하게 됐던....시간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긍정과 부정이 뒤범벅이 된 불안과 초조의 나날이었지만 장판 속의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모태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

스무 살의 나는 00 학번의 뒤늦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낯선 세상과 화해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영화 <스물>은 스물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군더더기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장 순수하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스무 살 동감내기 세 친구의 이야기는 웃음 가운데 끝났다.

부담 없이 보고, 즐겁게 웃고, 지난 20대를 돌아보게 한 <스물> 관람을 통해 함께한 회원 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



한국DPI 이동권투쟁단

박남주

▷ 한국DPI이동권투쟁단 소개

한국DPI의 필두로 서울지역 가맹단체 및 연대기관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인 시행중인 2015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리를 폐지·축소·박탈하고 왜곡하는 문제점을 규탄하고 투쟁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1) 한국DPI이동권투쟁단 핵심안건.

- 공영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잘못 운영하게 만든 서울 시장에게 사과 촉구.
- 장애인콜택시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운영개선방안이 아니라 행정편의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해결책을 찾은 시설관리공단 이사 퇴출을 요구.
- 독립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을 정립한다.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한 서울장애인콜택시 운영 협의회를 해산시키고 재구성한다.
- 장애인콜택시증차(법정차량수의 증대)를 하여 장애인콜택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 택시차량의 종류를 다양화(이원화운영)
ex)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와 휠체어 전용 장애인콜택시를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을 다양하게 구매하여 비용의 절감을 노린다.
- 공차율을 낮춤.
ex)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더 고용하여 피크타임의 회전율을 늘린다.
ex) 탄력운행제로 파트타임 운전자를 늘여서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투입.

2) 경과보고

◦공문시행

① 장애인콜택시이용자모임 “짱콜”과 간담회 요청하였으나 취소됨.

②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운영협의회(2014.9) 참석 시의원에게 질의서 발송예정.

③ 서울시장 면담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검토의견과 자료를 수신하였으며 서울시 택시 물류과 팀장과 한국DPI이동권투쟁단 김연희 간사와의 미팅이 1회 이루어짐.



▷ 한국DPI이동권투쟁단의 방향성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DPI이동권투쟁단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자면, 장애인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콜택시제도가 장애인이용자의 편의보다 행정편의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운영하려는 개선방안을 규탄하고 투쟁하여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국DPI이동권투쟁단 목표를 쟁취하기위해서 장애인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일반인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명분과 타당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이 시설관리공단 부속의 형태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독립운영기관으로서 발전해 가야한다는 뜻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 <4.19국민문화제>

허성현



▲ 4·19 국민문화제 참여.

2015년 04월 15일 토요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 지역축제체험의 일환으로 센터회원들과 함께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유축회, 4·19혁명공로자회, 강북구청에서 주최하는 4·19혁명 국민문화제에 다녀왔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4.19혁명 국민문화제에 참여하여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배우고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매개로 하나가 되어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희생영령들을 추모하고자 참석하였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4.19국민문화제는 4월 11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19혁명 관련 그림그리기 대회와 중학생 대상으로 4·19 혁명관련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18일에는 10시에 4·19정신계승을 위한 헌혈릴레이를 시작으로 13시부터는 태극기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태극기아트페스티벌에서는 태극기 포퍼먼스, 태극기 제작, 손바닥 도장, 페이스 페인팅, 대학생 태극기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무대행사로 16시 30분부터 1960년대 거리재현 퍼레이드, 태극기 작가 포퍼먼스(대형태극기/4,19릴레이/건곤강이 포퍼먼스), 4·19 풍물패공연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19시 이후에는 공식행사로 4.19전야제가 열렸으며, 4.19전야제는 1부, 2부로 나눠 진행되었고, 2부에는 락 페스티벌이 있었다.

많은 체험 중에서도 한지공예, 가훈 써주기 체험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태극기아트페스티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태극기를 포퍼먼스, 페이스 페인팅, 태극기 트리 등 다양하게 활용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의 멋을

알게 되었고, 태극기에 대해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의미가 있었다.



▲ 4·19 국민문화제 준비과정.

“응답하라!! 1960년대 존”이라는 체험에서는 4·19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통해 흥미롭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4·19 국민문화제 사물놀이.

풍물공연에서는 흥겨운 우리가락에 맞춰 박수 치고, 춤을 추는 것을 통해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상당히 해소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사 끝 무렵에 참여하여 좀 더 다양한 체험을 오랜 시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또한 타 기관에서 준비한 체험부스에 일방적으로 참여만하고, 우리기관만의 체험부스를 마련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때문에 2016년도에는 좀 더 오랜 기간 준비하여 체험부스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가족 고통증언대회

서울시청 점거 농성 현장

전난희



▲ 서울시 발달장애인가족들이 서울시청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서울시발달장애인 가족 고통증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 ▶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할 것. 이를 위한 ▶ 예산을 확보 할 것.’ 등이다.

이를 응원하고 동참하기 위해 강북센터에서도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으로 향하였다. 시청에 도착하니 발달장애인을 둔 어머님들과 발달장애아들이 차가운 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 발달장애인가족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시청 공무원들.



▲ 쓰러지는 농성 중인 어머님.

10일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농성 현장은 서울시에서 부모님들 몰래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보호·돌봄 관련 입장’은

농성 중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올해 1곳 설치 및 향후 4곳 추가 확보. ▶내년 중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권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순차적 마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여부 검토 등의 계획.’ 등이다. 이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요구사항과는 현저하게 동떨어지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격분하여 시청로비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발달장애아동.

이에 반발한 부모님들과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쓰러지는 어머님들도 속출하였다. 서울시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입장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내년 까지 1개소 설치. ▶권역별 4개소 설치와 함께 2018년까지 25개구 설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요구대로 권역별 4개소 설치·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서울시 발달장애인부모들의 농성을 동참하기 위해 강북센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내용이 아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대화를 통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대책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0일 이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강북센터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이들과 함께 하였다.

참고자료-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50410164129014001#z>

보신각에서 울려 퍼진 420장애인차별철폐 총 투쟁 결의대회

전난희



▲ 420공투단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보신각에 모여 있는 모습.



▲ 420공투단 참여 모습.

4월 20일 올해도 어김없이 420장애인차별철폐 총 투쟁(이하 420공투단)이 보신각에서 열렸다. 더 이상의 시혜와 동정어린 눈길을 뿌리치고 우리들의 당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말이다. 이날 420공투단엔 양영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와 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이유진(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자립생활 이념은 이미 들어왔는데 정부가 자립생활을 짓밟고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시설에 쳐 박혀 죽고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사는 것을 묵과 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권을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소수이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유진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사회와 같이 이윤과 효율성으로 재단 사회에서는 소수자들이 설 곳이 없다”, “우리 동네에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였다.

총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보신각에서 청계광장까지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가두행진은 진행하였다.



▲ 420공투단 참여 모습.



▲ 420공투단 참여 모습.



▲ 가두행진을 하는 모습.

자료출처-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50420181038817886#z>

김은경의 개별ILP 이야기

김은경

2차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이하 개별ILP) 진행은 2월에 있었던 아버지 49제 제사음식에 필요한 음식재료를 마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살 것도 많고 준비 할 재료들도 많아서 걱정 이었는데 다행히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 하는 개별ILP에 참가 중이어서 그 지원금으로 아버지 49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후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아침을 먹고 아버지가 계시는 파주 납골당으로 친척들과 이동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친척들 모두 눈물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 살아생전 효도 한번 못해드린 게 너무 죄송하고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자꾸 흘러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버지가 그리워 눈물이 내려합니다.



3월 12일에는 영화 '헬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기대를 하지 않고 봐서인지는 몰라도 영화는 의외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영화 관람 후 점심 식사로 오랜만에 햄버거를 먹어서인지 참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수목원에서 삼림욕을 하고 싶어서 수목원엔 28일에 갈 생각으로 그 전날 광릉삼림청국립수목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수목원을 한 바퀴 걸으니 맑은 공기와 숲이 주는 편안함을 맘껏 누리고 왔습니다. 다만, 너무 이른 날짜에 가서인지 꽃이 피질 않아 활짝 핀 꽃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수목원 가는 길이 좀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힐링이

되어 돌아오니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그 덕분에 평범했던 일상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목원은 꼭 다시한번 가고 싶습니다.

수목원에서 삼림욕을 하고 식사 때가 되어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음식 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습니다만, 비싼 만큼 맛이 좋았습니다. 음식 값이 비싼 대신 커피 값을 50퍼센트를 할인 해주어 커피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2차 개별ILP는 아버지 49세 제사 준비와 영화관람, 수목원에서의 삼림욕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3차 개별ILP 계획은 자기개발 차원에서 천연화장품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제가 고맙고 소중하게 여기는 지인들에게 작게나마 나의 마음을 선물 하고자 합니다.

개별ILP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지만 10만원이라는 제한 된 금액으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배울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뿐 이었는데 이렇게 강북센터를 통해 개별ILP에 참가함으로써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강북센터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 대하여

이하용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imyoon2na/220305647127>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개북동 성매매업소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 성매매 여성 5명과 14명이 각각 희생되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한 성매매 여성의 일기장에는 강요와 폭력 속에 성매매를 해야만 했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전국적인 집창촌 해체운동으로 번졌다.

이 사건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매춘행위 및 성매매알선 행위의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중 성을 파는 자와 성을 사려하는 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자발적인 성매매일지라도 건전한 성 풍속을 확립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법익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가 가능하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성매매특별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또한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위헌 여부의 옳고 그름을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을 보완·개정함으로써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건전한 성 풍속 보호를 목적으로 처벌 규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범죄대상에서 제외해 사회구조적 성차별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게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논거가 뚜렷하지 않다.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게 여러 남성에게 성을 제공한 여성은 나쁘고, 남성이 그 나쁜 여성과 섹스를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쌍방 간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쌍방 간의 합의는 대등한 양자 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행위로서,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는 도덕적 낙인을 찍으면서도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관대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중적인 남성 중심적인 성의식과 불평등한 성문화에 의해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내가 보는 성매매는 사람의 성은 돈으로 매매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성매매란 행위는 물질만능주의적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사람의 성을 매매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택한다면 청소년들이 원조교제 등 돈을 쉽게 벌기 위해 거부감 없이 성매매에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쪽에서도 명암이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성매매 특별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성적 약자들의 성생활을 방해하고, 되레 음지에서 성생활을 강요하게 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성적 약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집단 때문에 법을 없애는 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인·장애인 등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장애인 등의 성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상태고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이 바람직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정책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소개서

김소연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소연입니다. 저는 연골무형성증이라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라 지금 현재는 혼자 자립하여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자립이라는 것이 저에게 이루어 졌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니 다양한 사람이 많았고 온 세상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못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알지 못 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된 곳은 센터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회원으로 다양한 경험과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화 보기, 스포츠 관람,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서 안하는 단점이 있어서 여러 경험을 못했었는데, 센터에서 주관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무서움을 떨치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양한 장애인 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여러 장애인분들과 영화도 보고, 지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완벽하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제로이고, 말도 더듬고 가끔씩은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하여 가끔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러지만, 인턴으로 들어오면서 일지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업무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방법과 글 쓰는 방법을 습득하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센터 소장님, 팀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께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인턴 기간 동안 열심히 배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동료상담,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스스로 강해지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은 저에게 전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족했던 저의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의 정보

전난희

4월부터 범칙금이 두 배로? 올 해부터 새로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운행전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필수!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도로교통법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유아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지만 확인하면 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강화!

지금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상향 조정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현행 승합자동차 기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현행 승합자동차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자동차 튜닝 및 수리, 안전도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튜닝 활성화화를 위해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됐다. 최근 자동차 튜닝 인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반면 튜닝 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은 높았다. 이에 튜닝 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됐다.

대체부품 성능 및 품질 인증제 도입

대체부품 성능 및 품질 인증제도 도입됐다. 이는 순정품(자동차제조사에서 만든 부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이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부터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제작, 운송 중 결함 발생, 구매자에 미리 고지해야!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 판매자들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제품인지를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만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부터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 흠집 등 결함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역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 승차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정지 처분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1월 29일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산정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택시과잉공급지역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출처-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9897>

여서안심택배재함

- 운영시간 :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
- 강북구 설치장소 : 수유1동주민센터(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299 무인택배함)
강북구청(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무인택배함)
미아동복합청사(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5길 14 무인택배함)
- 운영내용 : 택배신청시 안심택배보관함이 설치된 곳을 물품수령주소로 지정 → 무인택배 관제센터에서 배송일시 인증번호를 수령자에게 문자 메시지 로 보냄 → 무인택배함프로그램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물품 수령
- 이용금액 : 48시간(무료) 경과 후 1일 1,000원 부과

출처- <http://www.gangbuk.go.kr>

CCTV 비상벨을 아시나요?

강북구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중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551대의 CCTV가 통합되어 운영중이며 이 중 472대가 방범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472대 중 400대 이상의 CCTV에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상벨은 CCTV 폴대의 중간, 허리 높이 부분에 있습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벨 버튼을 꼭 누르면 관제센터의 경찰관과 바로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벨을 누른 위치를 경찰관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CCTV의 비상벨을 꼭 기억하세요~

출처- <http://www.gangbuk.go.kr>

봄에 눕다

시샘의 바람이 멈추면 기죽을 것 없는 봄이 만개한다.
농농한 꽃잎들의 향기가 세상을 덮고
나는 조용히 봄에 누워본다.
찬란한 봄의 줄기는 마음으로 흘러 세상 모두가 어여쁘다.
아름다워서 과분한 봄이어라! 넘치는 봄이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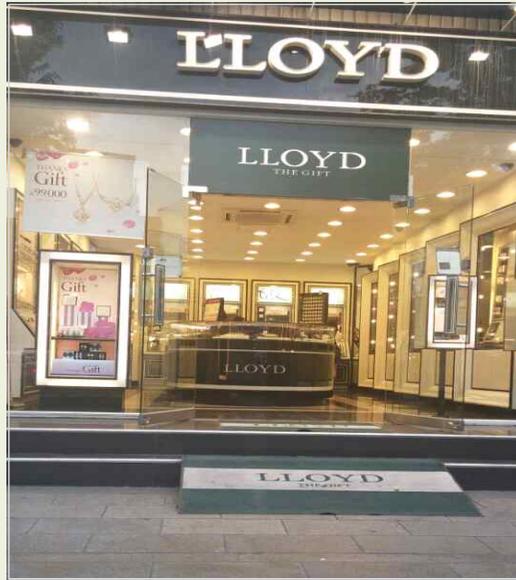
파블로 네루다에게처럼 '시가 내게로 온 날'이 있다.
세상이 온통 시가 되는 날.
징하게 화창한 날에, 징하게 아름답게 꽃비가 내리면
시도 함께 내린다.

내일이면 손발이 오그라들어 민망한 어제였다 여겨질지라도
지금은, 시가 내게 와 있다.

—강예신 『한뼘한뼘』 P90

장애인파파라치

이하용



▲ 경사로가 깔려있으나 있으나 한 입구.



▲ 경사로를 깔았으나 끝에 계단이 있음.



▲ 휠체어장애인이나 왜소증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높은 영화관 매표소.



▲ 언뜻 보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듯 보이지만 입구가 좁고 턱이 있어 접근불가.

15년 4월 CMS 명단

곽광현 곽상봉 김낙현 김남석 김보람 김부윤 김석현 김숙이 김용자 김은순
 김재환 김종환 김중민 김태환 김현실 김휘경 노재용 강미선 박동열 박민숙
 박시연 박원배 배소영 손연숙 안병훈 안해영 예성호 오재준 우의정 유수근
 윤두선 이경식 이광섭 이승준 이영숙 이태연 이하용 이화선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최윤숙 최전균 허흥무 홍점표 황일면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시설에서 지역으로!” 회원가입서

※ 아래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인(서명)

신청인	생년월일(양/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직장 :	<input type="checkbox"/> 자택 :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
장애유형	장애급수		
집 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우편발송	<input type="checkbox"/> 집	<input type="checkbox"/> 직장	
전자우편			
가입동기	<input type="checkbox"/> 지인소개	<input type="checkbox"/> 매스컴	<input type="checkbox"/> 행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약정 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 CMS출금이체 동의서(회비 자동이체 신청서)

본인은 CMS 출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금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서명)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주민번호		
이체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만원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 일	

2015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활동보조인탑승보드 설치

활동보조인탑승보드



완충 바퀴로 변경 가능

케어라인 버디2를 제외한 모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설치가능합니다

활보탑승보드 - 기존바퀴 : 130,000원
- 완충바퀴 : 170,000원

조이스틱의 위치를 변경하여 보드에 탑승한 활동보조가 조종하도록 개조 가능.

설치문의

강북구민자립지원센터 GOODJOE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26-13번지
 H.P : 010 - 3020 - 8874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906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